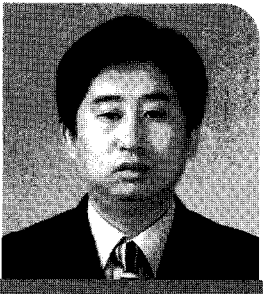


## 직업병은 정말 없어졌는가?



울산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유철인

최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업의 투자로 인해 과거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수은 중독 같은 고전적인 직업병은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통계를 보면 소음성난청을 제외한 직업병은 이제 특수건강진단 통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정말 직업병은 없어졌을까?

대기업은 물론이고 많은 중소기업들도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담당하던 많은 유해 작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서 하청이나 재하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울산지역은 조선업체가 아주 많다. 이 조선업체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직접 담당하던 도장 작업이나 샌드블라스트, 용접작업 등 많은 유해 작업을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하청업체의 작업환경은 직영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아직까지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제대로 된 작

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업종의 경우는 블록이나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따로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암에 걸린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뢰를 하지만 실제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처음부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 관련성이 희박한 암도 있지만 폐암과 같이 직업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암이 단지 근거자료, 특히 발암물질에 대한 폭로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분명히 본인 진술에 의하면 발암물질을 취급한 것이 확실하지만 퇴사한지 몇 십 년 후에 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작업환경측정과 같은 데이터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라, 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경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져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업환경 측정 자료가 데이터로서 가치를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전으로, 이것은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판단된다.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어떤 유해물질에 폭로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를 바탕으로 특수건강진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으며, 직업병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발암물질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많은 발암물질과 유해물질들이 버젓이 허용기준 내에 있는 것으로 조작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건강진단이 이루어지고 직업병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직업병이 제대로 진단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 제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신뢰성 있는 자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도 각종 유해물질을 숨기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측정기관이나 건강진단기관도 사업주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나 내 주변의 동료가 직업병이나 직업성 암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 자료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제도에 의하면 비용지불을 사업주가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측정기관이나 건강진단기관을 한순간에 다른 기관으로 교체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측정기관이나 건강진단기관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직업병은 정말 없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단연코 '예' 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신뢰성도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업병에 대한 통계도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다. '작업환경측정이 바로 서야 산업보건의 바로 선다.' 🍌